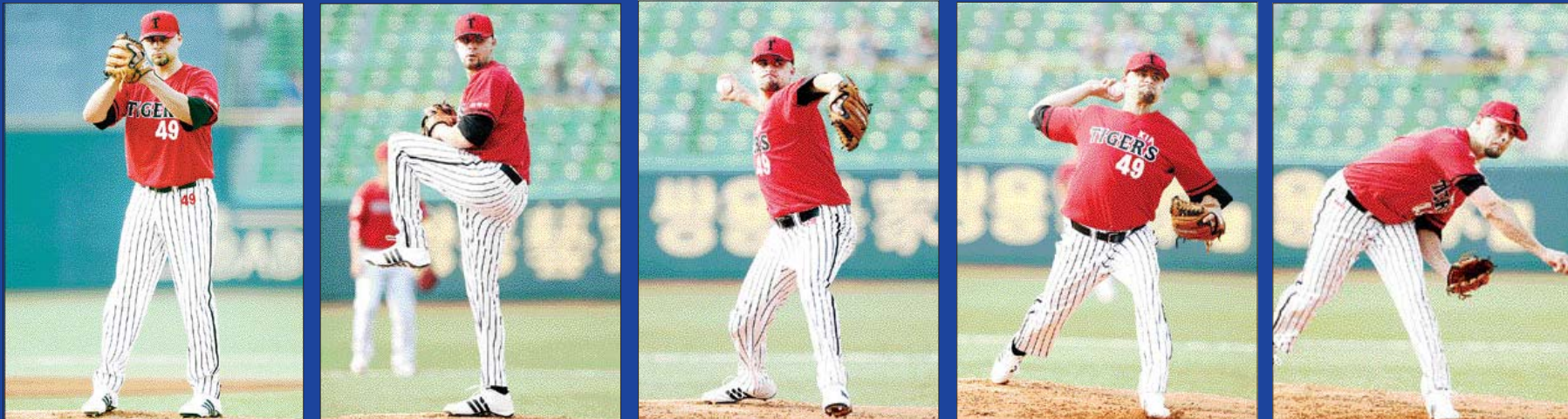


사계절 무더위와 한창 막연 폭염으로 상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행로드 관동 (당첨 후환영IC 영수증 프린트 게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청정선제 실시
- 예약: www.hpdyneasy.co.kr 0801-320-7700

KIA '명품 용병' 예고 데이비스



“빅리그 매운 맛 보여주겠다”

KIA 타이거즈의 새로운 용병 데이비스가 '명품 용병' 탄생을 예고했다. 4강의 마지막 길목에서 선 KIA는 지난 3일 용병 교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시즌 초반 들쭉날쭉한 경기로 2군행 수모를 겪었던 리마는 퇴출 전 5경기에서 4차례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자리를 잡는 듯 했지만 3승만 남기고 쓸쓸히 퇴장했다. '리마 타임'을 종료시킨 데이비스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000년 밀워키에서 메이저 생활을 시작해 총 107경기에 등판해 4승 10패 5.53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데이비스는 메이저와 마이너를 오가다 한국행을 선택했다. KIA에서 몇 년간 공을 들인 데이비스는 지난 7일 삼성전에 첫선을 보였다. 1·2회를 삼자범퇴

최고 구속 151km...제구력도 탁월

130이닝 평균자책 0.69 '굿 스타트'

로 요리한 데이비스는 3회 2사 1·2루에서 우동균의 적시타로 1점을 내줬지만 이날 유일한 실점이었다. 데이비스는 192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직구와 상대 타자의 허를 찌르는 변화구로 데뷔전에서 6이닝 2피안타 4탈삼진 1실점 하며 합격점을 받았다. 중간 계투진의 난조로 첫 승 신고에 실패했지만 안정된 제구력과 함께 첫 등판에서 최고구속 151km를 찍으며 '한 수위' 실력을 과시했다.

두 번째 등판에서도 데이비스는 7이닝 4피안타 4탈삼진 1실점의 환상의 투구를 선보이며 퀄리티 스타트를 끊었다.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벗겨진 데이비스는 테이핑을 한 채 '부상투혼'으로 마운드를 지켜냈다. 3회 1사 1·2루에서 병살타를 유도한 데이비스는 4회 1사에서 연속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준 뒤 연속 삼진으로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였지만 승운은 따르지 않았다. 7회까지 1-0의 리드를 지켜낸 데이비스는 마운드를 내려오자마자 팀이 역전이 되는 바람에 '헛심'만 쓰고 말았다. 데이비스는 이번 주말 두산 베어스와 홈경기에서 홈팬들에 첫 선을 보인다. 자신의 첫 승과 팀 4강을 위한 데이비스의 여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KIA 금주의 프로야구



15~17일·부산

18~20일·광주

◇프로야구 중간순위 (14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55	28	0.663	0.0	1승
2	두산	49	33	0.598	5.5	7승
3	한화	48	40	0.545	9.5	1승
4	롯데	42	40	0.512	12.5	3패
5	삼성	40	47	0.460	17.0	3패
6	KIA	39	46	0.459	17.0	1패
7	우리	35	48	0.422	20.0	1패
8	LG	31	57	0.352	26.5	3승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희섭 '한 방' 재장전

이재주와 함께 복귀...방망이 활력 기대



‘돌아온 빅쇼이’ 지난 5월 12일 허리통증으로 1군에서 하차했던 최희섭 <사진>이 15일자로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 다시 팬들과 만난다. 그동안 재활 치료와 체력훈련을 병행하던 최희섭은 지난달 27일 합평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2군 경기에서 첫 실전 배팅에 나선 뒤 타격감을 조절해 왔다. 2군 무대에서 9경기에 출전해 0.423의 타율을 기록하며 2개의 홈런을 선보인 최희섭

은 지명타자로 나서 침체에 빠진 팀 타선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 컨디션 난조로 2군으로 내려갔던 이재주도 이날 1군에 등록하면서 KIA 타선에 한층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이재주는 지난 5, 6월 최희섭이 빠진 4번 자리를 맡아 8개의 홈런으로 팀 내 1위를 달리는 등 팀 공격을 주도했었다. 14일 현재 32개의 팀홈런으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KIA는 차세대 거포 김주형·나지완에 이어 최희섭·이재주까지 전력에 가세하면서 홈런 레이스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전망이다. 새로운 용병 다이즈-데이비스의 합류로 마운드 재정비에 성공한 KIA는 돌아온 거포들의 '한 방'을 앞세워 남은 4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한기주·이용규 '태극마크'

올림픽 야구대표 24명 확정 해외파 중에선 이승엽 뺄려



2008베이징올림픽 야구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가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는 14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이승엽(요미우리)을 포함해 김광현(SK)과 박진만(삼성) 등 국가대표 24명을 발표했다. 포지션별로는 김광현과 류현진(한화), 봉준근(LG), 송승준(롯데), 한기주(KIA·사진 왼쪽), 오승환, 권혁(이상 삼성), 임태훈(두산), 장원삼(우리),정대현(SK) 등 투수가 10명이다. 포수는 진갑용(삼성)과 강민호(롯데) 2명이 뽑혔으며 내야수는 정근우(SK), 김동주, 고영민(이상 두산), 김민재(한화), 박진만(삼성), 이대호(롯데), 이승엽 등 7명, 외야수는 이진영(SK), 김현수, 이종욱(두산), 이용규(KIA·오른쪽), 이택근(우리) 등 5명이다. 구단별로는 대표팀 사령탑 김경문 감독

이 이끄는 두산이 5명으로 가장 많고 리그 1위를 질주중인 SK와 삼성이 각각 4명, 롯데가 3명, 한화와 KIA, 우리는 각각 2명, LG 1명 순이다. 해외파 중에서는 이승엽이 유일하게 대표팀에 합류했으며 추신수(클리블랜드)와 임창용(야쿠르트)은 소속 팀 사정으로 인해 끝내 합류하지 못했다. 또 홈런과 타점, 장타율 1위를 질주중인 김태균과 롯데의 간판투수 손민환, KIA 에이스 윤석민 등은 최종 엔트리에선 어렵게 제외됐다. 베이징올림픽 야구는 한국과 아테네올림픽 우승팀인 쿠바를 비롯해 일본, 미국, 대만, 캐나다, 네덜란드, 중국 등 8개국에 출전해 예선 풀리그로 4강 토너먼트 진출팀을 가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4일(한국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아테네 그랑프리 치클리티리아 2008 육상대회' 남자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선수들이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은희 코닝클래식 3위

지은희(22·울라코리아)의 추격전이 무위로 끝나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피와 오웬스 코닝클래식의 우승컵은 폴라 크리머(미국)에게 돌아갔다. 지은희는 14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우스 골프장(파 71·6천42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추격의 고삐를 죄지 못하고 1타를 잃어 최종합계 13언더파 271타로 3위에 머물렀다.

위창수 존디어클래식 4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세번째 한인 챔피언에 도전했던 위창수(36·테일러메이드)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위창수는 14일(한국시간) 일리노이주 실비스의 디어런TPC(파 71·7천257야드)에서 열린 PGA투어 존디어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2타를 줄였지만 단 1타가 부족해 연장전에 나가지 못했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69타로 마친 위창수는 16언더파 268타로 연장전을 벌인 케리 페리, 제이 윌리엄스, 브래드 애드모니스(이상 미국)에 1타 뒤져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볼트 그랑프리 육상 200m 금

베이징올림픽 남자 육상 100m와 200m 동시 석권을 노리는 '썬더볼트' 우사인 볼트(22·자메이카·사진)의 꿈이 서서히 무르익고 있다. 볼트는 14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아테네 그랑프리 대회 200m에서 19초67을 찍고 우승했다. 19초67은 올해 각종 대회를 통틀어 시즌 최고 기록이자 개인 최고 기록이다. 종전 볼트의 최고는 19초75이며 볼트는 올시즌 2위 기록(19초83)도 보유 중이다. 또 1996년 마이클 존슨(미국)이 세운 세계 기록 19초32에는 10분의 3초 가량 모자랐지만 역대 다섯번째 해당하는 빠른 기록을 쓴 볼트는 올해 19초대만 세 차례 뛰면서 가장 안정적인 페이스를 자랑하고 있다.

